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임미화(경희대학교 석사) · 조성균(경희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사범의 삶과 경험을 질적연구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지도자를 지향하는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태권도장 본질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KTA 전국태권도장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사범 중 도장경영 경력 15년 이상인 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경험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탐구절차는 Creswell(2002)의 7단계를 간소화 하여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라 말할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기에서는 3차원적 탐구 공간인 시간성, 장소, 사회성에 주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의 의미를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시간성 공통요인을 통해 ‘태권도 시작과 선택’, ‘사범에서 태권도장 경영자’, ‘KTA 교육강사’ 순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사범의 이야기를 도출하였다. 둘째, 장소 공통요인에서는 ‘어린 시절 태권도장에서의 서로 다른 기억’, ‘사범으로 일하던 태권도장에서의 같은 관점’, ‘자신의 태권도장’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사회성 공통요인인 관계적 내러티브에서는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나’, ‘후배 사범님들에게의 고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를 통해 태권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장의 본질을 알아가기 이전에 교육의 주체인 사범의 역할과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태권도장의 교육 현실의 문제점 파악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내러티브 탐구, 태권도 사범, 태권도장 경영, 사범 정체성, 태권도장, 태권도

* 본 논문은 임미화(2019) 석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입니다.

** beomhong@kh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는 1961년부터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지원되면서 활성화되어 지난 50여 년간 국내외 수련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한국문화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부상했다(장석왕, 2017). 그러나 국내 수련인구는 유아·아동을 중심으로 편향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수련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태권도 유품(단)자는 2012년 7,590,086명에서 2017년 8,784,987명으로 증가세는 보이고 있으나, 1품(단)이 63.1%나 차지해 장기 수련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러한 현상은 태권도장의 주요 고객이 연속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고 마는 경영손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태권도 관련 일자리의 정체로 인해 대학 내 태권도 관련 학과가 2012년 39개 대학에서 2017년 28개 대학으로 큰 폭의 감소추세에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는 향후 태권도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일선 태권도장 수련생들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그에 따른 도장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서 거론된 태권도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태권도 발전의 중추적인 근본을 이루는 태권도장에서도(문광선, 2004)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7년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 따르면 태권도장 수는 11,744개로 전국체육도장수의 무려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태권도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며 2012년 이후로 현재까지 11,000개소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도장 간의 경

쟁 심화로 대부분의 도장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세업종으로 분류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처럼 태권도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태권도 교육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장들 사이에서는 수련생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생겨났으며 ‘잘 되는 위치’라고 하면 같은 건물, 심지어 같은 층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각종 ‘사은품’을 통하여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곽정현, 임신자, 2010). 이러한 도장 간 경쟁은 결국 태권도장은 단순한 유희 중심의 놀이와 학교 교과과정에 따른 체육활동 등의 보조프로그램들을 주로 지도하는 곳으로 소비자(대중)에게 인식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정환희, 2015).

태권도장의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지도하는 태권도장의 사회적 역할의 인식 저하와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태권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체성의 혼돈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의 검색에 따르면 ‘태권도 사범의 직무 스트레스’ 16건, ‘태권도 사범의 역할 갈등’ 16건, ‘태권도 사범의 정체성’에 관한 부문 30건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무도적 가치와 정통성은 배제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에 연연하게 되다 보니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들의 태권도적인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유아·아동의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컨설팅들에 의존하게 되어 사범들의 노력과 연구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오장근,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원하는 태권도장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따라 태권도장의 본질이 훼손된 지금의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노력하는 사범들은 어떠한 경험으로 현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내러티브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태권도사범을 대상으로 한 삶과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는 태권도 수련자로서의 시작과 사범으로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분석하여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도장 경영자로서의 다양한 갈등과 경험 속에서 지금의 태권도

가 자신의 삶에 미친 의미를 정립하기까지 어떠한 시간, 공간, 상황들을 거쳐 현재의 사범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경험들을 의미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전국태권도장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에 출전한 사범 중 도장경영 경력 15년 이상인 태권도 사범을 대상으로 태권도사범으로서의 경험을 밝혀 태권도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범 및 지도자를 지향하는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태권도장의 본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전국태권도장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에 출전한 사범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태권도사범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을 사범의 삶으로 그리고 도장경영자의 삶으로 인도한 시간성 공통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수련자일 때의 태권도장과 사범일 때의 태권도장과 도장 경영자일 때의 태권도장은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으며 그 경험은 도장경영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는가?

셋째, 도장경영자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사범’이라 정의하는가? 또한 사범으로 성장하기 위한 공통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태권도 사범’은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한 현장과 개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구의 문제와 연구의 중심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무엇을 표본으로 추출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나 현장을 표본으로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김동학, 2013; Cerswell, 2017). 왜 태권도장을 경영하는 태권도지도자가 연구 참여자여야 하는가? 태권도장 경영 경험은 현재 태권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KTA강사로 활동하는 태권도사범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도장경영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경험한 이야기가 풍부하고 풍성하게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표집대상은 자신의 태권도 경험에 대해 풍부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경험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내러티브 공간이 된다. 태권도사범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광범위한 이야기가 탐구되어지나 주요 연구공간인 태권도장 경험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대화 속에서 이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참가자들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대한태권도협회 교육 강사로 전국태권도장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에 출전을 했으며 태권도장 경영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44세~55세에 해당하는 연령이며,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태권도 도장경영자 8인으로 구

성되었다. 성별은 남자 7명, 여자 1명이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인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번호	지역	성별	이름(가명)	출생년도	도장운영경력	학력
1	충청도	남	전배움	1972	18년	대졸
2	서울	남	강소신	1961	30년	박사
3	경기도	남	최연구	1971	19년	박사
4	경기도	남	엄기술	1969	21년	석사
5	전라도	여	정열정	1971	23년	박사
6	서울	남	심완성	1962	32년	전문대
7	경상도	남	정대쪽	1963	25년	무응답
8	전라도	남	황나눔	1975	15년	박사

※2018년 기준. 연구 참여자의 가명은 연구자가 인터뷰와 현장에서의 느낌대로 주관적으로 정했다.

3.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태권도에 입문하여 태권도장을 경영하고 대한태권도협회 강사가 되기까지의 그들의 경험에 대해 그들과 연구자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내러티브를 탐구하고 해석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내고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다(Schwartz, 1997). 즉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 말투, 언어, 몸짓 등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인터뷰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자신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인터뷰법의 원칙에 따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위해 연구자는 그들의 개인 SNS와 미디어 속 정보를 취합해 연구 참여자들의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이야기를 미리 파악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상 내러티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연스런 분위기를

유도하여 연구 참여자가 솔직한 이야기를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자 본인의 도장경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이끄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시간성, 공간성, 사회성의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적으로 함께 경험하고 느꼈던 것,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자가 되어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참여자마다 인터뷰 시간을 사전에 조율해 연구자는 인터뷰 전 일찍 도착하여 도장을 둘러보고,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인터뷰의 장소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의 현장을 느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배움은 태권도 시합장에서, 정열정은 품새 시합 출전을 위해 훈련받고 있는 도장에서, 황나눔은 회의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외 참여자는 도장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 질문 프로토콜

구분	질문영역	질문내용
1	태권도와의 만남	● 시작한 시기와 계기, 도장의 기억, 사범님, 추억 ● 학창시절의 진학 고민과 결정
2	태권도 사범의 길	● 입문 시기와 계기 ● 지도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 어려움
3	태권도장 경영인로서의 삶	● 시작한 계기 ● 경영목표 및 마음가짐 ● 경쟁에 대응하는 나 ● 도장경영의 이상과 현실
4	경진대회출전과 강사활동	● 참여 동기 ● 활동 후 달라진 점
5	보람, 비전, 꿈	● 후배사범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태권도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장의 정체성
6	삶의 의미	● 태권도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구조화하기보다는 이야기 중에 궁금한 점, 느낀 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야기는 연구 참여자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내용만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였고 가능한 연구 참여자가

하고 싶은 태권도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설문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구성하였다. 녹취자료 수집을 위해 핸드폰 녹음기를 활용하였으며, 내러티브의 특성에 따라 메모노트, 표정, 말투, 행동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전사과정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내러티브 탐구를 하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계획서에 대해 윤리적 승인을 받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Connelly & Clandinin, 2000).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속 시간과 공간, 사회로 여행을 떠난다는 점에서 연구 텍스트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Connelly & Clandinin, 2007).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수행을 위해 전화로 연구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연구 참여자가 편한 장소로 방문하여 내러티브 탐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또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논문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기꺼이 모든 연구 과정에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고 연구결과를 생산하는데 협조해 주었다. 또한, 언제든지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시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동의하였고, 연구자는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익명성 보장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설명하고, 연구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 익명성을 유지할 것임을 설명하였는데, 모두 실명 거론에 동의하였으나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장소, 단체명, 도장명 등 동의하지 않은 다른 관련인들의 정보 노출을 염려하여 가명 처리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에 기초한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의 실증주의 철학의 객관

주의에 토대를 둔 실험 및 조사연구와 연구결과의 타당화 과정이 다르다. 최근 들어 질적 연구 자료의 타당성은 이야기의 정직성, 진실성, 깊이와 풍부함, 자료의 범위와 연구 참여자, 다각검증의 정도와 연구자의 공평성과 객관성 정도라고 언급되기도 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100% 타당성을 기대하는 것은 낙관주의적 기대이며 불가능하다고 하였다(Cohen, Manion & Morridon, K, 2000).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실증주의 연구처럼 동시적, 예측적, 수렴적, 내적 및 외적 타당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며(Maxwell, 1992) 질적 연구자에게 타당성이라는 용어보다 이해라는 용어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Mishler, 1990). 그러므로 질적 연구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 가진 관점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보고서에 대하여 최대한 정직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였다(Hammersley & Atkinson, 1983).

질적 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접근법들은 내러티브 탐구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각측정법은 질적 연구자들이 연구의 타당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는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를 주장하기 위해 흔히 하는 방식이며, 여기에는 자료 수집원을 다양하게 한다든가 같은 결과에 이르는 여러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접근법이 반드시 스토리텔링 방식에 바탕을 둔 내러티브 연구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야기하기 방식 면에서 보면, 삼각측정법은 거의 성취하기 어려우며, 주요사건, 유사한 사건, 그리고 다른 사건과 관련된 틀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Leonard Webster & Patricie Mertova, 2017).

Polkinghorne(1988)에 따르면, 내러티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도구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전통적인 타당도와 신뢰도의 기준들을 내러티브에 적용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오히려 접근방법(access), 정직성(honesty), 진실성(verisimilitude), 진정성(authenticity), 친숙함(familiarity), 전이성(transferability), 경제성(economy)과 같은 새로운 도구들을 찾는 것이 유익해 보인다고 하였다(Huberman, 1995).

Ⅲ. 이야기하기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라 말할 수 있는 연구자의 내러티브와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이야기하기가 시작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들은 Connelly와 Clandinin(2000)에 의해 기술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속에 이야기들을 위치하며 탐구하면서 작업한 결과로 사범으로서의 경험 속에 나타나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성 공통요인(시간적 내러티브)과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장소 공통요인(상황적 내러티브),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관계를 나타낸 사회적 공통요인(관계적 내러티브)을 발견하여 통합된 내러티브가 형성된다. 내용과 관찰을 토대로 나타난 전사 자료로 공통된 범주를 찾아 분류 한 결과 1) 시간적 내러티브: 사범의 시작, 그리고 도장경영자로 2) 상황적 내러티브: 태권도장, 도장경영 같은 공간 다른 맥락 3) 관계적 내러티브: 태권도사범이 사범에게의 범주들이 형성되었다.

1. 시간성 공통요인: 사범의 시작, 그리고 도장경영자로

내러티브 탐구의 공통요인 중 첫 번째 시간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항상 누군가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존재하는 독특한 요소이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과 장소, 사건의 시간성에 주의를 기울여 이야기하고 성장과 변화의 과정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 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기에 우리는 지금의 사범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시간성속에서 어떠한 경험이 그들을 태권도사범의 삶으로 인도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시작과 선택

연구 참여자들은 필연적이거나 운명적으로 태권도사범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태권도장에 흥미의 정도를 넘어 깊이 좋아하며 빠져들었으며, 겨루기 선수 생활 및 태권도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범의 길을 걷게 된다. 태권도 수련의 시작의 계기는 모두가 상이한데 반해 사범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함축된다. 그 첫 번째는 ‘태권도가 좋아서 잘 가르치고 싶어서’라는 이유이며 다른 한 가지는 ‘생계의 수단으로 적합해서’라는 이유이다. 몇몇 연구 참여자는 다른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못 잊어 도장을 찾게 되고 스승의 권유에 수긍하며 자연스럽게 사범이 되기도 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생업으로 적합한 직업으로 태권도 사범을 선택하기도 했다.

2) 사범에서 태권도장 경영자

여러 동기를 통해 사범이 된 연구 참여자들은 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사범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사범의 주요 역할인 태권도 수련지도 현장에서 수련생들이 자신의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실력이 늘지 않는 경험으로 자기반성을 하게 된 정열정은 교수법 연구와 교육과정의 체계화에 눈을 뜬다. 반면 체벌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련을 한 전배움은 사범이 되어서도 체벌을 통한 교육의 효과에 만족하며 지도를 하게 된다. 전배움은 기관에서 주축한 교수법 교육을 통해 칭찬과 격려를 통한 교수법을 터득하며 자신의 도장을 경영할 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연구 참여자들의 도장경영은 처음부터 긍정적인 시작은 아니었다. 심완성과 전배움은 주변 환경조사에 미진해 초기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며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의 태권도장이 인정받는 곳이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3) KTA 교육강사

태권도장 경영자로 오랜 시간 지내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수련지도법, 경영법을 정리해 KTA 전국태권도장경영 및 지도법경진대회에 출전했다. 물론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자의가 아닌 타인의 권유로 출전을 하게 되었지만 이 출전을 계기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소속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지도법 및 경영법도 체계를 잡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2. 장소 공통요인: 태권도장, 다시 또 태권도장

내러티브 탐구의 공통요인 중 두 번째인 장소는 사람들, 장소, 그리고 이야기들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모든 사건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Connelly & Clandinin, 2006). 그 장소들이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실천적 지식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탐색하면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장이라는 공간이 각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지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연구 범위 안에 두었다.

1) 태권도장에서의 서로 다른 기억

태권도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태권도 수련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같지만 다른 경험을 이야기한다. 아버지가 사범인 강소신은 위계와 절도와 높은 강도의 수련을 경험하였으며, 최연구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가기 싫지는 않았던 곳으로 말하며, 정대쪽과 심완성은 무섭고, 힘들었던 곳이라 이야기 단 반면 정열정은 도장의 모든 것이 즐겁고 재미있었던 곳이라 말하는 것을 보면 같은 태권도를 배우는 장소에서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2) 태권도장 사범으로서의 같은 관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도장에서 접한 경험과 기억이 사범생활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범으로서의 지도법은 시행착오를 통한 반성적 태도를 거쳐 자신만의 교수법을 형성해 간다.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장 사범을 직업으로 수행하는 중에 끊임없는 시도와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 속에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를 잘 가르치기’라는 목적으로 직업을 수행하며 경영자와 학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한다.

3) 자신의 태권도장에서의 경험

태권도장 경영의 방향성은 태권도 수련이 주가 되는 도장으로 일치감을 보이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금의 도장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된다. 우선 도장경영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함축되는데 ‘멋있는 도장’과 ‘제자들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이다. 멋있는 도장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들어가 보면 태권도를 잘 가르쳐 태권도를 잘 하는 도장을 만들고 싶은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드러나며 체계적인 도장, 성인부가 지속되는 도장, 제자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는 도장, 제자가 사범이 되고 사범에서 도장경영자가 되는 도장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자들의 성장 목표는 바른 인성을 품은 제자들이 태권도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기능적인 면으로는 경영 초기에는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표선수가 되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은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제자들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변도장을 의식하기보단 자신만의 태권도 교육에 집중하여 교육과 지도법의 차별화에 더욱 집중하였다.

3. 사회성 공통요인: 태권도 사범으로의 성장과 반성

내러티브 탐구 공통요인 중 세 번째는 사회성이다. 이 사회성은 ‘관계적’ 상호작용을 뜻하기도 하며 사회적 상황 속에 끊임없는 교류를 뜻하기도 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의 삶은 연구 참여자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탐구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Clandinin, 2015).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반성적 주관성을 연구에 결합하도록 하였다. 이미 충분히 라포 형성이 된 연구 참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수직적 관계의 어려운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냈으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소신과 소명이 진실되게 드러나 있음을 느꼈다. 관계적 즉 상호작용은 개인과 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김동학, 2013).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러티브를 통해 사범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사범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1)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나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주체가 인식대상과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반성적 활동을 통한 탐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Dewey, 1922; 1938). 이것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자신의 사고 작용을 거친 탐구행위에 의해 성취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김신영, 2016). 이것은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성적 사고가 가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을 선호하는 것에 의한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지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사려 깊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유철민, 2011, Dewey, 1916). 사범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반복적이며 구체적인 반성적 사고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범정체

성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신을 태권도 사범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태권도 사범이라 불리고 싶다고 이야기한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다. 태권도경영자에게 ‘태권도 사범님’이라 칭하는 것은 극존칭의 의미라 말하며 사범의 호칭에 큰 의미부여를 한다. 또한 태권도 사범으로 불리고 싶어 도복을 입고 자신의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태권도 사범님이 되고 싶지만, 사회적 위치로는 솔직하게 관장이라고 불린다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으며 자신의 본질이 ‘사범’이라 말하는 연구 참여자가 대부분이었다.

2) 후배 사범님들에게의苦言

좀 더 배우셨으면 좋겠다. 교육 다니면서 배우셨으면 좋겠고, 진짜 사범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배우셨으면 좋겠다. 성인은 아이들보다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하고 이론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 좀, 지도법 좀 배웠으면 좋겠다. - 전배움

아무리 공중에서 구백도를 돌아도 그게 태권도는 아니야. 스핀일 뿐이지. 너희들이 하는 퍼포먼스는 머지않아 진다. 화려한 꽃은 금방 지니까. 근데 기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화려한 것은 나중에 꽃이 떨어져도 꽃이 다시 피어. 근데 뿌리 없는 태권도가 지금 태권도냐. 품새 너 제대로 해봤어?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해봤다고 말을 못해. 그걸 이해 못하면 태권도를 이해 못해 - 강소신

태권도 도장은 기술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연령에 따라 수련의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기본 동작, 발차기에 대한 기술적 테크닉은 가지고 있어야, 배운 제자가 나중에 태권도를 했다고 생각하죠. - 엄기술

도장은 태권도를 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 태권도를 제대로 가르쳐 수련자가 땀을 흘리며 땀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가장 최고의 서비스죠. 그래서 수련생들이나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이해력이 떨어져서 도장이 편하게 놀고 오는 곳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또래 관계나 하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열정

사범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신의 성격과도 안 맞고 태권도를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고, 단지 4단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사회에 죄고, 태권도에 죄고. 그 도장을 보내는 그 아이들과 학부모한테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 정대쪽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32년간의 도장경영과 그 이상의 사범경험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은 앞으로의 태권도를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대쪽은 태권도 사범은 태권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며 태권도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단지 사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사범이 된다면 그건 태권도에 대한 죄고, 수련생들에게도 죄라고 말한다. 엄기술은 태권도 도장은 기술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술 수련 가운데 나오는 많은 과정들 속의 에너지들이 인내로, 존경으로, 정직으로, 각 인성의 요소로 가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황나눔은 태권도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에게 받은 고마움을 다시 태권도에게 돌려주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심완성은 사범은 도장에서의 모든 활동이 즐거워야 하며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

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전배움 또한 사범으로서 성인을 가르치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배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정열정은 태권도장이 힘들다는 이유로 태권도사범을 기피하는 대학생들에게 태권도장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지금의 도장이 편하게 놀다 오는 곳 혹은 또래 관계를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러한 도장의 잘못된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연구는 선순환 구조로 태권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사범다운 사범님이 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길 바란다며 사범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소신은 태권도사범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야 태권도가 살아난다며 태권도 기술에 대해선 적어도 거만해질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V. 다시 이야기하기

본 연구는 사범이자 태권도장 경영자인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사범이자 경영자인 연구자는 태권도 사범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연구가 출발했다. 연구자의 삶 속에는 태권도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이 함께한다. 태권도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를 두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수많은 태권도인은 올바른 방향에 대해 무수한 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험을 통해 그들이 목소리를 내며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한 연구자 자신도 어떤 경험을 통해 지금의 태권도사범으로서의 태권도장 경영자로 존재하게 된 것인가? 라는 물음에 쉽게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각자가 살아온 경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간결하고 명료한 시각화된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답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를 시작한 연구자도 함께 동참한 연구 참여자도 그저 각자의 삶 속에서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에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태권도장 경영자로 일

선 사범들에게 도움을 주는 KTA강사의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가 있다. 바로 그 경험과 이야기가 탐구되었으며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의미 있는 해석과 구성으로 연구한 것이다. 다시 이야기에서는 논의와 결론, 그리고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8명의 도장을 경영하는 사범의 삶과 경험이 탐구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현재 사범인, 그리고 앞으로 사범이 되고자 하는 태권도 수련자들의 삶에 투영될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첫째, 태권도장내 위계 문화에 따른 문제점이다. 과거의 태권도장은 상하 관계의 위계질서가 확실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도장 내 수직적 위계 구도에서 암묵적 신체적 억압 및 차별이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어릴 적 도장을 무서운 곳, 차별이 있는 곳이라 기억해 냈으며 이는 성장한 이후 자신의 도장경영 초기엔 고스란히 접목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며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이후 도장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었다. 물론 기존의 태권도장의 차별문화는 교육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도장 내에 혹시나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수직적 위계관계의 강압적인 언어표현 및 교육을 빙자한 합당 하다 여길지 모르는 작은 차별의 형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범교육의 부실과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교범 및 사범 생활을 할 때 사범으로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태권도 지도법을 배워서 수련생을 가르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지도 경험을 통해 교수법을 터득했다. 또한, 주로 혼자 맡아서 수련 지도를 하였으며 지도를 하면서 받은 노동의 대가는 지극히 적은 금액이었다. 이런 형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태권도장 고용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태권도사범에 대한 직

업으로서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정태겸, 2017). 이뿐만이 아닌 유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태권도 사범을 위한 교육 현실은 열악한 상태이며 태권도 사범연수의 겨루기, 품새 등의 교육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전정우, 박경혜, 2005). 태권도 사범으로서 도장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권의 현실성 있는 사범교육을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태권도 사범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범경력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사범의 능력에 따른 적절한 급여책정 및 권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반성에서 시작된 자기계발의 중요성이다. 사범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연구 참여자들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며 사범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립된 사범으로서의 교육관과 가치관은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습득해온 태권도 기술체계와 함께 자기계발의 시간이 존재한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인생을 살고 있다. 태권도 현장에서 태권도전문가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살고 있었다. 태권도 손기술의 전문가, 태권도 교육체계의 전문가, 태권도 품새 지도의 전문가, 태권도 인성교육의 전문가 등등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의 태권도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태권도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2. 결론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해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과 경험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고 분석함으로써 태권도사범들의 내러티브에 담겨있는 사범이 되기 위한 노력과 역할, 그리고 도장경영자로서 겪은 갈등과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태권도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서의 수련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기억되며 그러한 경험들이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함으로써 태권도사범과 도장경영자로서의 경험 속에 태권도가 자신의 삶에 미친 의미를 정립하기까지 어떠한 시간, 공간, 상황들을 거쳐 지금의 정체성과 삶의 경험들을 의미화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며 사범 자신의 자아 성찰을 통해 사범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어릴 적 태권도수련의 경험을 토대로 태권도사범으로 수련지도를 했으며 학습과 자기반성의 절차가 이뤄지며 사범으로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태권도사범으로서 정체성이 강화되는 지점은 태권도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아 자신감을 얻게 되어 태권도장을 경영할 때에는 주변의 도장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가르칠 수 있는 도장의 형태로 경영에 매진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차별된 지도법과 경영법으로 주변의 KTA 전국태권도장경영 및 지도법경진대회 입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도법 및 경영법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어 강사로 활동하며 태권도사범으로서의 굳건한 철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다섯째,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본질을 사범으로 규정지으며 자신의 ‘지식’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하였다. ‘태권도장’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태권도’를 주로 가르치는 교수행위는 자신을 사범으로 인식할 때부터 시작된다. 사범으로 인식해 태권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의식이 생기면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 계획과 실행의 큰 틀을 만들게 되며, 태권도사범으로써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지도에 헌신하게 된다. 태권도지도의 성공은 좋은 사범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가르침을 담당하는 사범의 역할은 지대하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의 무도적 관점, 경험과 철학, 지속적 학습이 재구성되어 학습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태권도사범의 사범으로의 인식은 수련내용의 선정과 전달방법 등 수련자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사범으로서의 삶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생각한다.

3. 제언

태권도사범의 삶과 경험에 관한 연구는 태권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장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 중 하나이다. 사범은 태권도장 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의 태권도장의 교육은 서론에서도 밝힌 바 태권도보육체육관의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도장의 정체성은 이미 흔적해졌다. 따라서 차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도장경영자인 사범이 아닌 태권도장에서 직업으로 근무하는 사범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사범 육성과 대학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제언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기되었던 향후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후속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경험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태권도장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TA교육강사로 활동하는 태권도장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탐구였지만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 사범의 교수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대한민국 태권도장의 교육 현실의 문제점 파악과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태권도장뿐만이 아닌 대학 및 유관단체로 확대시켜 교수 및 행정담당자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어려움을 짚어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태권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내러티브 이외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태권도사범의 삶과 정체성의 내용, 특성,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 참여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사범으로서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의성의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등을 통해 현재 태권도장경영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범과 도장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동학(2013). **체육대학 교육경험을 통한 체육전문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신영(2015). **‘생활의 달인’의 생애에 나타난 직업성공 내러티브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광선(2004). **태권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제인 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
- 오장근(2010).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유철민(2011). **듀이 경험 이론에 비추어 본 구성주의 교육론**.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석왕(2017). **세계화에 대응하는 태권도 정신의 재정립**.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전정우, 박경혜(2005). 태권도 사범연수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4(1), 49-57.
- 정태겸(2017). 태권도 사범의 노동환경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국기원태권도 연구**, 8(3), 19-39
- 정환희(2015). **태권도 교육시설 명칭에 따른 교육관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 Cohen, L., Manion, L., & Morrison, K. (2000).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5 th edn] London: Routledge Falmer.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41, 21.
- Creswell, J. W. (2002).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pp. 146-166).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ueva York, NY. *Macmillan*. D' Mello, SK, & Graesser, AC (2012). *Dynamics of affective states during complex learning. Learning and Instruction*, 22, 145-157.
- Dewey, J. (1922). Human Nature and Conduct: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Modern Library.
- Dewey, J. (1938a). *Experience and natur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Hammersley, M., & Atkinson, P. (1983).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London: Tavistock.
- Huberman, M. (1995) 'Working with life-history narratives', in H. McEwan, K. Egan(eds) *Narrative in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Martela, F., & Steger, M. F. (2016). The three meanings of meaning in life: Distinguishing coherence, purpose, and significanc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5), 531-545.
- Maxwell, J. (1992). Understanding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Harvard educational review*, 62(3), 279-301.
- Mertova, P., & Webster, L. (2019).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An Introduction to Critical Event Narrative Analysis in Research, Teaching and Professional Practice*. Routledge.
- Mishler, E. (1990). Validation in inquiry-guided research: The role of exemplars in narrative stud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0(4), 415-443.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Suny Press.

Schwartz. Howard and Jerry Jacobs (Ed.). (1997). *Qualitative Sociology: The Method to the Madness*. New York: The Free Press.

Abstract

Taekwondo Master Narrative inquiry about life and experience

Lim, Mi-Hwa(Kyunghee univ.) Cho, Sung-Kyun(Kyunghee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Taekwondo majors aiming for leadership to help their efforts to maintain the essence of Taekwondo studio through narrative about the life and experience of Taekwondo master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eight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e KTA Taekwondo Studio Management Contest and won awards are selected by intentionally sampling method. The research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generally called 'Taekwondo chiefs' but in this study, the titles of the chiefs are not used, instead, they are called 'Taekwondo masters' as an operative defin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erms of time, place, and sociali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common factors of time, we derive the story of the teacher in the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in the order of 'Taekwondo start and choose', 'Taekwondo manager' and 'KTA education instructor'. Second, common factors of place consist of 'different memories in Taekwondo field in childhood', 'same viewpoint in Taekwondo field which worked as a teacher', and 'own Taekwondo chapter'. Third, in relational narrative which is a common factor of sociality, it consists of 'Tae Kwon Do as a teacher' and 'Adjective to junior teachers'. Through this study,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 role and identity of the teacher, who is the main subject of education, before finding out the essence of the Tae Kwon Do,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Taekwondo development. It would be possible to contribute.

Key words: Narrative inquiry, Taekwondo master, Taekwondo management, Master identity, Taekwondo do-jang, Taekwondo

논문투고일 : 2020.12.31.
심사일 : 2021.01.10.
심사완료일 : 2021.01.31.